

공공 언 남북관계 스포츠로 해빙 절호의 기회

최고의 흥행카드 단일팀·北 성화봉송·응원단 파견 담보상태
FISU 찬성·북한도 긍정적...정부 적극 협조 없이는 불가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3> 광주U대회 성공 개최

남북단일팀 정부가 나서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 U대회) 대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회 흥행을 결정할 남북단일팀 구성·북한 성화봉송 등은 여전히 담보 상태여서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남북단일팀 등 대북 문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협력력을 위해 서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월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21개 종목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전 세계 170여개국 대학생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회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U대회는 전세계 대학 선수들이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대체스포츠 축제로 올림픽 규모의 종합대회라는 점에서 대회의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마추어 대회의 성격이 강한 탓에 흥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아킬레스건을 지니고 있어서다.

눈에 띄는 흥행카드가 없는 한 개최국인 국내에서조차 외면받는 이른바 ‘그들만의 대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최대 흥행카드로 남북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북한~백두산~관문점~광주를 거치는 대북 성화봉송 이벤트 등을 추진중이지만,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단 대회 내외부적으로는 남북단일팀 구성에는 걸림돌이 없다는 게 광주U대회 조직위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남북단일팀 구성을 공식 승인받았으며, 광주에서 열린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북한 청년 4명을 초청·개최하는 등 남북단일팀 조성을 위한 정성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스포츠계에서 제기하는 국내 대표팀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선수단 구성 여부가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U대회 조직위는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던 일부 종목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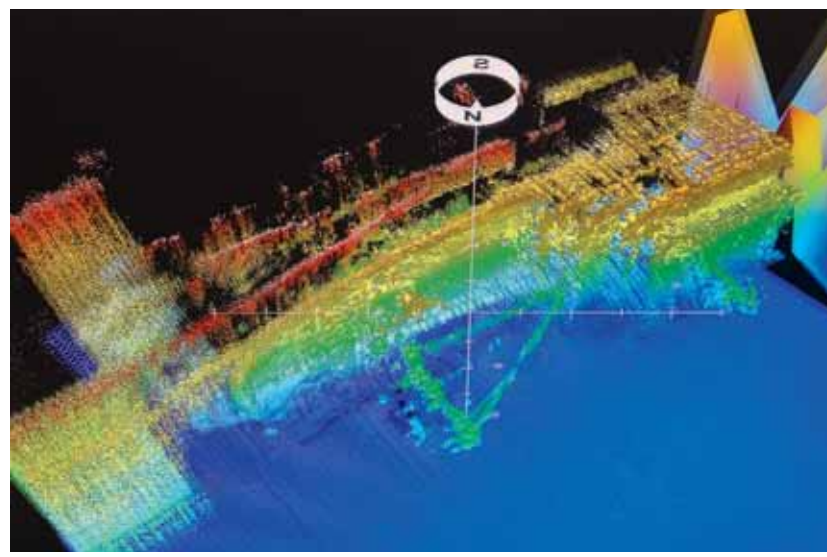
FISU도 남북 단일팀 구성 및 북한 성화 봉송에 적극적이다.

북한도 지난 2003년 대구에서 열린 U대회에 선수단은 물론 대규모 응원단까지 파견하는 등 청소년(대학생) 체육행사인 U대회 참여만큼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남북 긴장 완화와 교류 증진에 스포츠 외교가 적지않은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 U대회를 경색된 남북 대회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월호 선체 탐사 ... 입체 영상으로 나타난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여 만인 25일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앞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단계 현장조사가 시작했다. 탐사선인 현대 보령호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연구소 연구원들이 세월호 선저면 탐사를 위해 멀티빔에코사운더(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위>. 아래는 이날 음향측심기로 수집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세월호의 모습. 데이터 수정 및 보정 없이 만들어진 영상이라 노이즈가 보이지만 선수 부분의 크레인(왼쪽), 배 중앙 부분의 레이더 장치의 모습이 온전히 보인다. /연합뉴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의혹 공개검증”

광 수석 3명 교체·특보 4명 인선 ... ‘무늬만’ 호남출신 1명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새 총리후보로 지명되고 청와대 일반 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또 4명의 청와대 특보도 발표됐지만, 거취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3·4면>



이완구 후보자

그러나 임명된 8명의 인사 중 대구·경북(TK) 출신이 4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대신 호남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고향만 광양이고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와 ‘무늬만 호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또다시 탕평인사라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또 김 실장 뿐만 아니라 논란에 휘말렸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대통령 비서 3인방을 그대로 청와대에 남겨 해 쇠신인

사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의 수석이 현정택 전 KDI 원장이 내정됐다. 유민봉 초대 국정기획수석은 물러났다. 김영한 전 수석이 사퇴해 공석 중인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했다. 미래전략수석에는 유일한 호남 출신인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박 대통령의 특보단으로는 민정특보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나아가 김기춘 실장이 일단은 유임됐으나 내주 중으로 정무특보단 추가 인선 등 청와대 후속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후임 실장에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홍사덕 민회협 의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권영세 현 주중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TX 전라선도 저속철...반발 확산

코레일 운영계획 자료

전체 3분의 1 서대전역 경우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일부 KTX 열차가 대전을 경유하느라 45분이나 더 걸리는 ‘저속철’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선 KTX 중 서대전역을 거처도록 계획된 열차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지역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코레일의 KTX 운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3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호남선(서울~목포)과 전라선(서울~여수)을 운행하는 KTX는 주말 기준 하루 상·하행선 운행 횟수는 62회~82회로 20회 늘어난다. 82편 중 서대전역 경유열차는 18편(22%)이다.

호남선은 하루 44회에서 56회로 12회가 늘어나는데 서대전역 우회 차량은 10편으로 전체 운행편의 18%를 차지한다. 전라선은 18회에서 26회로 8회가 늘며 서대전역 경유는 8편(31%)이다.

한편 광주시는 25일 “호남 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이용자가 호남선 전체 이용자의 7%에 불과하다”며 신설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www.gjstec.or.kr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협력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 장비 및 레스토랑, 헬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 대규모 국제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로 운용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 30여년의 역사와 호남최고의 명성이 있는 신양파크호텔에서 위탁운영

문의/예약 062) 609-0500~1

표 문화원류-티낭을 마을 ▶ 18편

아시안컵 ‘虎飛이落’

오늘 18시 이라크와 4강전 ▶ 20편

광신대학교 2015년도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26(월)~2/2(월)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 · 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매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현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대기)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송학부동산 (062) 710-7007
담당자 010-6318-9611

